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6. 3

5th Week

목 차

■ 본문

1. ITU-T SG3, 표준화의 기술과 경제·정책의 일치 강조
2. ETSI/EENA, 유럽 재난통신 상호운용성 플러그테스트 착수

■ 기타소식 5 쪽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. ITU-T SG3, 표준화의 기술과 경제정책의 일치 강조

(ITU strengthens ties between technology, business and policy)

보도날짜 2016.03.09

출 처 ITU

사 이 트 http://www.itu.int/net/pressoffice/press_releases/2016/09.aspx#.VupLGnlf19B

- 국제사회는 기술 혁신, 사업 상 필요, 경제·정책적 요구 간의 강한 결합을 위하여 중립적인 체계(플랫폼) 마련에 ITU만의 민·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
 - ITU는 정책이 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부 계획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시장경쟁 실패라는 문제점과 관련 법률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으로, 기술의 혁신과 정책의 개발 속도 일치를 위해 노력해왔음
- 최근 ITU 회원들 사이에 기술과 정책의 일치가 주요 관심사로, 특히 전기통신의 경제·정책을 담당하는 ITU-T SG3이 대표적임
 - ITU 홀린자오 사무총장은 ITU-T SG3 작업에 개발도상국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격려함으로써, 기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정책, 경제, 관세 관련 논의 및 국제 표준화 참여에 대한 격차가 줄 것으로 기대함
 - ITU-T SG3 세이치 의장은 ITU-T SG3이 ITU의 경제·정책 연결 및 기술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, ITU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이 신규 기술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제·정책적 기반을 혁신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함
 - ITU-T 이재섭 사무국장은 현재 ITU의 기술적 표준화 작업은 주로 표준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업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, 기술적 표준화가 기술 혁신, 산업 필요, 정책 요구를 동등하게 반영한다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ITU-T SG3에서는 이에 대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 언급함
- ITU-T SG3는 2월 22일~3월 1일 제네바에서 정부, 규제자, 민간, 소비자, 학계 및 연구 단체 등의 대표가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함
 - SG3는 오버더톱(OTT)¹⁾ 통신 관련 토론을 통하여 OTT 메시징(messaging),

1) 오버더톱(OTT, Over-The-Top) :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. 오버더톱은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, 영화 등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 유료방송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케이블 방송과 경쟁.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넷플릭스(Netflix)와 훌루(Hulu)가 있음 [출처: TTA정보통신용어사전]

전화(Telephony),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국제표준 개발을 논의하였고, OTT 혁신, OTT로의 규제 접근법, OTT 플레이어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 간 협력 가치,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토론함

- SG3는 이동전화에 활용되는 '모바일 머니' 혁신인 모바일 금융서비스(MFS, mobile financial services) 연구를 통해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
- 이로써, ITU-T SG3 작업이 국제표준 제정으로, 소비자에 권한을 부여하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관한 ITU-T FG와 밀접한 협력으로 MFS 경쟁 및 시장 진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함

■ 현재, ITU-T SG3에서 5개의 국제표준이 1단계 승인이 완료됨

- ① 국제적 인터넷 연결 비용을 줄이는 지역적 인터넷 교환 지점(IXPs, Internet Exchange Points) 설치 및 연결(ITU-T D.52)
- ② 보편적 서비스의 국제적 관점(ITU-T D.53)
- ③ 차세대 네트워크(NGN, Next-Generation Network)의 요금 및 회계원리(ITU-T D.271(개정))
- ④ 국제 모바일 로밍요금을 결정하는 방법론(ITU-T D.97)
- ⑤ 시장 정의 및 시장 지배력을 가진 운영자 식별의 원칙(ITU-T D.261)

2. ETSI/EENA, 유럽 재난통신 상호운용성 플러그테스트 착수

(ETSI and EENA launch the first emergency communications interoperability Plugtests in Europe)

보도날짜 2016.03.14

출 처 ETSI

사 이 트 <http://www.etsi.org/news-events/news/1069-2016-03-news-etsi-and-eena-launch-the-first-emergency-communications-interoperability-plugtests-in-europe>

- ETSI와 산하기구인 재난통신(EMTEL, Emergency Telecommunications) 특별위원회, 그리고 유럽긴급번호협회(EENA, the European Emergency Number Association)는 유럽의 첫 차세대 112(NG112) 재난통신 플러그테스트에 착수함
 - “차세대112(NG112)”라는 개념은 긴급전화에 대한 풍부한 콘텐츠를 요하는 수요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 인식되어 왔음
 - 이번 플러그테스트 시행은 아직까지 유럽에서 NG112 제품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등이 시험되지 않아 진행된 것으로, 이번 플러그테스트 행사는 ETSI와 EENA가 개발한 유즈케이스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고, 2016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ETSI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임
- 이번 행사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의 112 통신의 모든 체인 요소들을 독립적이면서도 공동으로 시험하는 것이 목적으로, 아시아, 유럽, 북미 등 기업들은 자사 기기를 테스트 구조물에 연결하여, ETSI 본사(프랑스) 및 연구소에서 현장의 솔루션을 시험 가능함
 - 또한, 위치 기반 긴급전화 라우팅, 정책 기반 긴급전화 라우팅, 차세대 미디어 유형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임
 - 재난통신 기기 관련 솔루션 제공자가 그들 제품을 다른 시행상황 또는 시나리오에 시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, 이는 차세대 환경에서 재난통신 솔루션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것으로 보임
 - EENA 기술국장 크리스티나(Cristina Lumbreras)는 재난통신에 있어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, 이번 계획의 성공여부는 개별적인 수행만이 아닌, 시민들에게 향상된 재난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교훈 습득 등에 있음을 언급함

기타 소식

미국, '2016 세계 표준의 날' 개최 예정

▶ 출처 : http://www.ansi.org/news_publications/news_story.aspx?menuid=7&articleid=8d27a114-3971-437c-a61e-c974c3ee65cb (2016.03.14.)

- 올해 '세계 표준의 날*' 행사는 2016년 10월 27일 워싱턴 D.C에서 "신뢰를 구축하는 표준(Standards Build Trust)"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

* 1970년에 시작한 '세계 표준의 날'은 ANSI와 NIST 주최로 세계적으로 매년 개최되며,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기관 대표가 참여한 계획위원회에 의해 조직되었음

